■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만족과 피팅 습관　　성경: 요한복음 15장 5-12절

Tag: 방희연, 김점숙5, 김혜숙10, 차례, 김현영(규원친구)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15:5-12)

사람은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다.

사람 뿐 만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끊임없이 변하면서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설계되고 창조되었다. 다만 각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철새도 수 많은 종류가 있지만, 모두 같은 먹이를 찾는 것은 아니다. 키와 다리와 부리가 각기 달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나뉘어 있다.

놀라웁게도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새 부리를 만드셨고, 하는 수 없이 철새들은 자신의 부리로 먹을 수 있는 것들만 사냥할 수 밖에 없

다.

동물들은 생존하는 것이 숙제이지만, 거기에 더해 사람은 근본적으로 도전하고 응전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응전하라 하셨으니 당연히 사람의 본능 속에 도전본능, 응전본능을 주셨을 것이다.

모든 생물에게는 두려움의 본능도 있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왜냐면 두려움의 본능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생물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려고 하고 의심되는 것에 대한 접근을 주저한다.

그러나 두렵다고 해서 마냥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것 또한 위험할 뿐 아니라 더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안전한 상황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하여 더 큰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젊은이가 취직하려고 하는 것은 돈을 벌어 자신의 안전 자산을 확보해야 겠다는 안전본능과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자아실현의 욕구, 또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생존경쟁 속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젊은이가 왜 결혼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이성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사실은 인생을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홀로 있기를 선호하고, 쉽게 이혼하는 것일까? 둘이 있을 때 더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이를 갖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메스컴들이 부정적으로 열심히 일한 부작용으로 그런 나쁜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홀로 지내며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상상 외로 외로움이 주는 두려움이 크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왜 외롭지 않는걸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홀로 사는 것이 외롭지 않도록 스스로를 그 환경에 피팅하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14:1)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은 왜 도전하게 되는가? 그것은 현재의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두려움이 스스로를 도전 속으로 내 던지게 된다.
분명히 도전은 스스로를 위험 속으로 내 던지는 행동이다. 반드시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발생한다. 좌절하게 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으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철저히 준비했지만 예상 밖의 돌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그게 도전이고, 그게 인생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한다. 자산을 날리고, 시간을 허송하고, 트라우마를 짊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재도전을 포기할 것인가? 전혀 그럴 수 없다. 상황은 변하지 않거나 더 악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도전하게 된다.

그런데 재도전은 역시 실패를 거울삼아 더 철저하고 세심하게, 그리고 위험을 예측하면서 하는 것이기에 성공확율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한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피팅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전을 도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도전, 도박) 첫 글자가 같다고 해서 둘이 형제는 아니다. 사기꾼이 되어야 이기는게 도박이고, 운도 따라야 한다. 인생은 결코 한

방이 아니다. 도박이 아닌 도전은 성공적인 피팅만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성공적인 피팅에 필요한 자원은?... 열정, 유능함, 능숙함(뺀질거림아님), 전문지식(물론 돈이 많다면 남의 것을 빌려 쓸 수도 있다), 끈기(고집아님), 인내, 긍정적인 마인드, 정확한 피드백(게으름아님), 임기응변력(핑계아님) 등이 필요하다. (대부분이 영적 자원들이다.)

결국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피팅이 제일 중요하다. 성공적인 피팅을 위한, 위에 언급한 인성에 관한 자원들은 어디에서 벌어들인 것일까?

그것은 결국 양육의 결과로 얻어지는 자원들이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자원들인 셈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자원들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

>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가지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원들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는 비유적 말씀이다.

>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영적 자원이 없으면 결국 기독교인의 영성은 쇠약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 그렇다고 마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짓말, 권모술수, 협잡, 도둑질, 살인기술 등을 영적 자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 않는가?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자원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단, 조건은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영혼 안에 거할 것.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영적인 자원을 아낌 없이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이다.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사랑은 확인해야 제맛. -계명을 지키는 것.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도전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다. 자녀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겨우겨우 버티다 천국 가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악에게 승리하고 사명을 위해 도전하고 참 만족을 누리다가 천국에 오는 것을 원하신다.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15:5-12)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인생은 도전하게 되어있다. 지금 당신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하기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풍성한 영적 자원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안에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내어 도전하게 도와 주시고

도전에 필요한 많은 자원들이 확보될 수 있게 도와 주소서.

도전하는 우리 성도드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도전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게 하시고, 실패하더라도 정확한 피팅으로 재도전하게 용기를 불어넣오 주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구변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성경: 누가복음 21장 7-28절

Tag:

7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시대감각;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징조가 있는가?

8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받더라도 빨리 빠져 나와야 함.

9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재난이 닥쳐도 결코 끝은 아직 아니다.

10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치 지금의 지구를 예언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재난과 심판이 곧 종말은 아니다.

12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13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게 될터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증거가 되리라.

14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대응하도록 조심하라.

-미리 준비하면 마귀가 다른 수를 사용한다.

15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마귀도 어쩌지 못하는 수를 하나님이 주시리라.

16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런 일도 있으나 모두에게는 아니니 안심하라.

17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런 해도 받지 않으리라.

18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20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유대인에게 곧 닥치게 될 상황에 대한 예언

21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22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23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4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5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기서부터는 종말에 관한 예언

26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27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눅21:7-28)

재앙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지침